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0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20년 3월 16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

Ⅰ.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옴. 이러한 위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민감성과 즉각적인 대처는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선결 요건임.

-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고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유아가 바람직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념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하고 대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질병과 사고 발생 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예방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1)]
- 영유아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하여 전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또한 호기심이 많은 반면에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2)]
-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신종인플루엔자 팬데믹(H1N1 Pandemic),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옴.
  - ▶ 본 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관리현황과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안함.

Ⅱ.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진단

- 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유치원 유아에 대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하고, 유치원 내 긴급돌봄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및 사안 대응을 위한 구체적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3)]

1) 정미라·배소연·이영미(2012).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경기: 양서원.
2) 서현미·전미향·최나영(2009).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아동 건강지식 정도, 건강습관 지도이행도 수준 및 건강교육 요구도 조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2), 207-218.
3)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 계획을 발표함.

▶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 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함.

◀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 ▶

유아돌봄 및 건강 관리 관찰 등	⇨	**돌봄 인력** 건강 체크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리 등	⇨	**총괄** 담당
(전담인력)		**(지원인력)**		**(책임인력)**

※ 이상 징후 발생 시 보고체계 : 전담인력→지원인력→책임인력→교육(지원)청

- **전담인력** : 유아 돌봄, 돌봄 참여 유아 위생수칙 지도, 돌봄 유아 발열 체크 등 건강 징후 관찰 등 관리
- **지원인력** : 전담인력을 포함한 돌봄인력 전체 발열 체크, 긴급돌봄 학부모 연락 체계 유지, 방역·소독 지원 등
- **책임인력** : 전담 및 지원인력 건강과 안전 책임, 돌봄 참여 유아 관련 현황 총괄담당 등

주: 초등유치원장은 병설유치원과 병설된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 긴급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가능

자료: 교육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유치원 긴급돌봄운영 관리 지침(매뉴얼).

-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음.[4)]

  ▶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 사항으로 아동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교직원 수당 지급 시에도 휴무일을 근무로 포함하며, 격리된 보육교직원과 휴·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등 관련 지침[5)]을 배포한 바도 있음.

-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6)]

  ▶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함.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 2시간 연장, 가족돌봄휴가제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정부 정책의 즉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신청 비율이 20.1%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11.3%로 나타남.

  ▶ 긴급돌봄이 실시된 첫날 유치원 원아의 5% 정도만 참여하였으며[7)], 이에 고령의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을 요구함.[8)]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 2시간 연장, 가족돌봄휴가제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함.[9)] 정부 정책의 즉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5) 보건복지부(2020. 2.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6)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7) 연합뉴스(2020. 3. 4). '긴급돌봄도 불안'...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률 10% 미만.
8) 뉴스토마토(2020. 2. 27). 어린이집 긴급돌봄 제공해도 '감염 안되려 할머니에게 맡겨'.
9) 뉴시스(2020. 3. 6). 긴급돌봄 저녁 7시까지 연장... 아동수당 40만원 추가지급.

Ⅲ.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책 개선안

코로나19 정부 대응책의 개선안으로 긴급돌봄 운영 대책의 구체화, 원비의 부모부담 경감, 휴원 중 교직원의 급여 지원, 긴급돌봄 교사의 건강 및 안전 지원, 부모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소통과 지원, 감염병 장기화 대비 정부-학계-현장 협의체 구축을 제안함.

- 긴급돌봄 운영시간 조정 및 돌봄 취약가구 고려
  - ▶ 영유아 부모 자택 인근의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 시간을 추가로 이용(현행 오전9시~오후7시→오전 7시반~오후 7시반)할 수 있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유연근로제 등의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됨.
- 부모부담 경비 환불 및 이월
  - ▶ 유아교육법상 원비의 환불이나 이월 문제는 유치원이 직접 정할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지원금 외에도 상당한 원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기본 교육과정비 외의 특성화비, 간식비 등은 부모와 협의하여 환불 조치하거나 이월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원비 환불 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상 사립(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직원 임금을 원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수익자 부담금 등 일부 원비를 환불한 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 교사 마스크 우선 지급 및 감염병 예방키트 구비 의무화
  - ▶ 긴급돌봄 교사의 자녀돌봄 문제, 건강·안전 문제들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돌봄 교사들의 마스크 지원 요구도 큼.
  - ▶ 특히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 시 우선 지급하고, 감염병 예방키트(마스크, 소독제 등) 상시 구비를 의무화해야 함.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모와의 소통 및 정보 제공 확대
  - ▶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기관의 관리 현황, 영유아 상황 등 부모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매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가정돌봄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감염병 관련 오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사항과 대응방안을 상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정부-학계-현장 협의체 구축 및 대응책 마련
  - ▶ WHO는 11일 신종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10] 하였고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요구됨.
  -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긴급돌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긴급돌봄시 감염 예방을 위한 학급당 최소한의 인원, 교사 비율, 관리 방안 등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

Ⅳ. 유치원·어린이집의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과제

- 영유아 우선의 감염병 대책 수립
  - ▶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가 격리라고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즉, 원인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조치는 가정돌봄일 것임.

10) 연합뉴스(2020. 3. 12).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 '통제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영유아 우선의 감염병 대책 수립, 별도공간 확보, 보건교사 배치, 소독/위생 관리감독 강화, 교직원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가정돌봄 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함.

▶ 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기관돌봄을, 기관돌봄 또한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돌봄을 차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설계가 요구됨.

-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

▶ 3학급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다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신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유아를 별도로 돌보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선결 요건임.

▶ 싱가포르는 중증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휴식과 돌봄을 위해 지정된 공간(양호실)에 격리시켜야 함.[11] 따라서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개별 기관들이 격리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

- 보건교사 배치

▶ 최은영 등(2017)[12]의 연구에서 전염성 질환 발생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별도로 돌볼 인력 부족이 89.2%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실(양호실)과 보건교사가 있는 기관은 정원 규모 100인 이상이 높게 나타남.

▶ 100인 이상 기관의 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인 미만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독/위생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로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상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소독 의무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교직원 위기대응 능력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앱 개발·보급

▶ 전염성 질환 발생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 중 하나로 격리기준 명확성 부족이 70.3%로 나타남.[13]

▶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사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질병별, 증상별 대처 방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하여 정보 접근이 유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가정돌봄 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휴원 중인 영유아를 위해 가정용 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중국 허난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침과 절차(가이드라인)를 발표함.[14]

▶ 개원 연기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자료의 제작·배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은영 연구위원 eyny@kicce.re.kr

11), 12), 13)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http://edpolicy.kedi.re.kr/frt/webzine/selectOverseaWebzineList.do?strCurMenuId=36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클릭)